



www.at.or.kr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4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건면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맥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6. 소스류 (드레싱)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 호주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4월 25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850.87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4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호주



1. 김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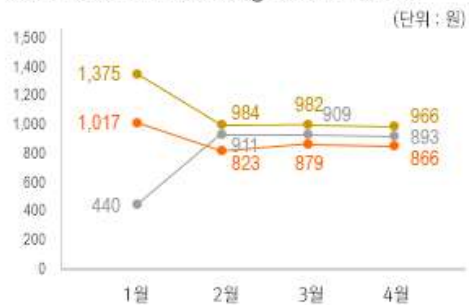
2)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3. 면류 (건면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4. 주류 (맥주)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4월의 경우 현지산 품목이 조사되지 않음

5. 제과류 (비스킷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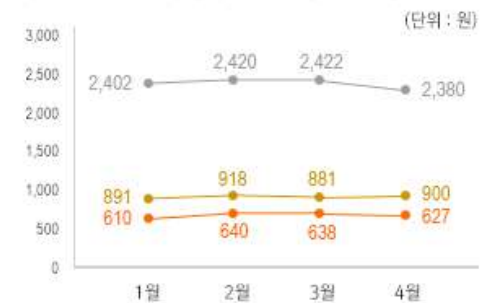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드레싱)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기타 가공식품

수요 감소 ▼ “ 카레 파우더와 초코파이, 호주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요 ”

아시아 식품 중 특히 한국식품과 일본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Asian Food 4 U의 담당자 Mr. Joel의 말에 따르면, 오뚜기社의 카레 파우더와 오리온社 초코파이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한다. 판매량 하락의 원인으로 지리적 위치와 맛을 꼽았다. 해당사의 소재지가 한국인 및 아시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기에 이전에도 판매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4월 둘째 주부터 부활절기간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해당사를 찾는 발걸음이 더욱 뜸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오뚜기社 분말 카레의 경우 일본산 고품질 카레 제품이 현지인들의 입맛에 더욱 잘 맞아 점점 더 하락세의 판매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초코파이도 현지인들의 입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 재구매율과 호응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분말 카레와 초코파이]

가격 하락 ▼ “ 주먹밥 개념에 낫선 호주 사람들, 프로모션으로만 구매해 ”

2010년 설립하여 한국 및 동양 식품을 주력으로 유통 중인 Woonho Mart Pty Ltd.의 Mr. Jung 대표의 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백설의 밥이랑 야채랑 제품을 해당사의 유일한 가격하락 품목으로 꼽았다. 제품을 들여온 기간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율이 저조하고 제품의 남은 유통기한이 짧아 가격을 낮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별도의 반찬 없이 해물, 치즈, 김자반, 야채 맛의 주먹밥을 만들 수 있는 간편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밥 개념이 호주 사람들에게 낯설어 진열장에 놓여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이에 간단한 야외 활동 및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간단 별미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여 가격할인을 동반한 프로모션 행사를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C社 밥이랑 야채랑]

조미김

가격 하락 ▼ “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심화, 조미김 가격을 흔드는 주범 ”

호주 수입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Samsung Trading Pty Ltd.의 담당자 Mr. Jang은 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밝혔다. 한국 도매상들의 심각한 가격경쟁이 호주 시장의 가격판도를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 꼽았다. 해당사도 한국산 솔미F&C의 10단 도시락 김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호주 시장 내 김 가격변동의 직격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조미김 도매시장 가격은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편이나 한국산 김들이 잇따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며 유통채널이 제한적인 연유로 한국 김끼리의 가격 경쟁이 매번 과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솔미 F&C社 10단 도시락 김]

스낵류

수요 증가 ▲ “ 독점수입으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 자랑하는 한국 아이스크림 ”

한국 및 아시아 제품 수입·유통업체인 S&L Global Pty Ltd.의 Mr. Jace에 따르면, 한국 바(Bar)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율이 증가 추세라 전했다. 호주에서 한국산 아이스크림의 독점 판매 기업으로 약 33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여러 거래기업에서의 주문량이 항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맛이 다양하며 잘 맞고, 패키지도 제품의 특성을 잘 드러낸 재미있는 제품이 많아 현지 소매기업 및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 감소 ▼ “ 인지도 부족, 미미한 판매율의 결정적 이유 ”

시드니 내 한국·일본·중국 식품 및 생활잡화를 수입·유통하는 S&L Global Pty Ltd.의 담당자 Mr. Jace에 따르면, 신화 팝콘스낵의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밝혔다. 호주 소비자들 및 교민들 사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기에 저조한 판매율을 보이며 그 하락세가 심화되는 추세라 설명했다. 해당사에서는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를 구매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맛이 좋은 한국 제품을 위주로 수입·유통을 진행하였으나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전했다. 이에 점차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취급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신화 팝콘스낵]

주류

수요 증가 ▲ “ 연령대별 다른 한국산 주류 선호, 호감도는 모두 상 ”

호주에서 수입주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Just Liquor Cellars社 Mr. Wayne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해당사의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별로 다른 제품을 선호하나 모두 한국산 주류의 구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20대에서는 블루베리 맛, 자몽 맛 소주가 30대에서는 매실원주를 판매율 1위 달성 및 증가 품목이라 했다. 특히 독하지 않고 달달한 맛으로 두 연령층 내 여성 주류인구의 입맛을 사로잡아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 판매량 1위 품목에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막걸리의 경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요리와 궁합이 잘 맞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막걸리와 함께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더한社 매실원주]